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의 관계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박미연** · 김현경***

초 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발달경로에 국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9년도에 한국의 3개 도시 소재 4개 중학교와 미국 Alabama 주의 3개 중학교에서 수집된 총 754명(한국 462명; 만 12~15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 초기 청소년의 국가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양국에서 같은 도구와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족지지만이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각각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국가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과 Wald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유의하였다. 반면,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청소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발달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의 다양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고려해야 할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초기 청소년,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가치, 비교연구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교신저자, hyoungkim@yonsei.ac.kr

I. 서론

자아가치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전반적인 가치로,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의미한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Harter, 1990). 자아가치는 일상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데(박선희, 2014), 이러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 긍정적 자아가치가 형성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신체·인지·정서·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탐색하는 시기로(Steinberg & Morris, 2001), 이 시기 형성된 자아가치는 이후 성인기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th, Robins & Widaman, 2012).

한편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 28.2%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이다(매일경제, 2020).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근 청소년들의 자해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7.9%의 중학생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자해 관련 상담 건수 또한 2018년에 2만 7,976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였다(동아일보, 2019).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Harter(1990)는 자아가치 발달에 타인과의 경험 속 그들의 관점과 평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Cooley의 ‘면경자아 이론’과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토대로 부모, 교사, 친구 등 주요한 타인의 지지가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해왔다. 즉, 친밀하고 긍정적인 가족과의 관계는 단·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irkeland, Melkevik, Holsen & Wold, 2012),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친구지지는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감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son & Demaray, 2007).

한편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에 만연한 대표적인 문제로, 우울과 불안, 자아가치를 비롯한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Hawker & Boulton, 2000).

특히 자아가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높은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을 덜 경험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Holt & Espelage, 2007). 이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초기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여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Mishna et al., 2016).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우울증상과 불안에 취약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Hankin & Abramson, 2001), 이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초기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Grills & Ollendick, 2002).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 피해에 장기간 노출된 청소년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부적응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Erath, Flanagan & Bierman, 2008). 또한 부정적 경험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자아가치가 감소하기도 한다(Grills & Ollendick, 2002). 즉, 자아가치 변동성이 큰 초기 청소년기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는 자아가치에 큰 흠집을 내게 되는 것이다(Shahar & Henrich, 2010).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각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Mishna et al., 2016). 특히,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해, 자살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예방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양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 적응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다(신경민, 2018). 그러나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국외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발달경로에 국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초기 청소년이 청소년이라는 공통적 발달 특성을 공유하나(김정규, 2009), 가족 및 친구관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이르는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가 자아가치 형성에 이르는 발달경로에서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Harter(1990)에 의하면 자아가치(global self-worth)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전반적인 가치로,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지식의 총합을 말한다. 자아가치는 자아존중감과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자아지각(self-perception)과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소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Harter, 1990).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자아가치와 자아존중감을 상호교환 가능한 단어로 보고 혼용하고 있다(노영주, 김순혜, 2016; Jenkins & Demaray, 2012; Miller, 2000; Mishna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혼용하고자 한다.

긍정적 자아가치는 청소년 자신과 그들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Baumeister et al., 2003), 개인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한다(Jenkins & Demaray, 2012). 반면, 부정적 자아가치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및 신체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wislo & Orth, 2013).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가치 발달의 장·단기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기는 자아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로(Fenzel, 2000), 이 시기 청소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한다(Steinberg & Morris, 2001). 또한 청소년들은 초기 청소년기 동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은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Harter & Whitesell, 2003). 그리고 이 시기 형성된 자아가치는 그 수준이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Fenzel, 2000; Orth et al., 2012).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

자아가치는 청소년의 일상인 학교생활, 학업성취,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박선희, 2014). 가족 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초

기 청소년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Birkeland et al., 2012),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모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ahin, Barut & Ersanli, 2013).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자아가치를 형성하게 된다(박은민, 2010). 실제로 또래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가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2; Shapka & Keating, 2005).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Steinberg & Morris, 2001).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학교와 더불어 청소년의 주요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는 중요한 환경으로, 청소년의 삶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의 지지 모두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고,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독립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또래 괴롭힘은 주변 성인에게 포착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부정적 영향 때문에 보고를 꺼리기 때문이다(Oliver & Candappa, 2007). 따라서,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Demaray & Malecki, 2003). 특히,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dler, Feifel, Rohrmann, Vermeiren & Poustka, 2010).

많은 연구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Reijntjes, Kamphuis, Prinzie & Telch, 2010). 특히 우울증상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나 과제 해결 상황에서 자아가치에 손상을 주는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준

다(Shahar & Henrich, 2010). 한편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의 인과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발생 및 지속 원인으로 낮은 자아가치를 주목하였다(Orth et al., 2012). 하지만 좀 더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자아가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장신재, 김희수, 2019; Steiger, Fend & Allemand, 2015), 시간에 걸쳐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가 서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Johnson, Galambos & Krahn, 2016; Sowislo & Orth, 2013).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간의 영향은 특히 초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 학업성취, 새로운 환경과 타인에의 적응과 같은 변화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여 내재화 문제가 쉽게 촉발되는 취약한 시기이다(Hankin & Abramson, 2001). 내재화 문제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타인의 평가에 과민해지게 만들어(Harter & Whitesell, 2003), 청소년기 자아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hahar & Henrich, 2010). 즉 초기 청소년기 만연한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같은 스트레스 경험은 내재화 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결국 자아가치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4.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몇몇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6; Birkeland et al., 201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권 모두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y & Grusec, 2006). 긍정적 친구관계 역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정미선, 2010; Shapka & Keating, 200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몇몇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6; Birkeland et al., 201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권 모두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y & Grusec, 2006). 긍정적 친구관계 역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정미선, 2010; Shapka & Keating, 200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몇몇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부모의 높은 지지가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덕, 2016; Birkeland et al., 201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권 모두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y & Grusec, 2006). 긍정적 친구관계 역시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가치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정미선, 2010; Shapka & Keating, 200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자아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를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성 침해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관심으로 여길 수 있다(최인재, 2005). 특히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Wang & Leichtman, 2000).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부모 양육방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부모는 미국 부모에 비해 자녀와 시간을 자주 보내며 잦은 대화를 하는 민주적 양육을 덜 하고(윤인진, 임창규, 정재영, 2007), 더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또한 한국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청소년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영준, 이미경, 2014).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는 또래 괴롭힘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반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또래 괴롭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훈, 송주영, 2009). 이렇듯 문화권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이를 지각하는 청소년의 태도, 그리고 또래 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영향에 대해 국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자아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매개경로에서 국가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임의로 선정된 4개 중학교의 학생 462명, 미국 Alabama 주 제퍼슨, 몽고메리, 터스칼루사 카운티에서 선정된 3개 중학교의 학생 292명으로 총 754명이다¹⁾.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또래 관계, 심리정서적 적응, 자아가치, 대처 행동 등의 문화 비교연구를 위해 한국과 미국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검사를 진행하였다. 총 754명의 청소년 중 성별에 응답하지 않은 한국 청소년 7명을 제외하고 남자 청소년은 339명(45%, 미국=116명), 여자 청소년은 408명(54.1%, 미국=17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3.64세($SD=0.61$)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67세($SD=0.58$), 미국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59세($SD=0.65$)였다. 본 연구는 연세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7001988-201912-HR-469-06)과 미국 Alabama 대학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8-08-1415).

2. 측정도구

1) 가족지지,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이용하여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준섭, 이영분(1999)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여러 인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다(Canty-Mitchell & Zimet, 2000). 이 척도는 각각 4개 문항의 가족, 친구, 주요한 타인의 지지를 묻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 책임연구원들의 연고지에 기반하여 임의선정되었다.

(7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4문항의 평균과 친구지지를 측정하는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이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89와 .926, 미국 청소년은 .890과 .926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가족지지가 .891, 친구지지가 .925이었다.

2)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Crick과 Grotpeter(1996)가 개발한 사회경험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임지영(1997)이 수정·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인 명백한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각각 5문항씩 측정하고 있다.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을 평균 낸 값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13, 미국 청소년은 .876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48이었다.

3) 내재화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보고한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으로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한국과 미국 모두 Weissman, Orvaschel과 Padian (1980)이 개발한 청소년용 우울측정척도(CES-DC;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hildren)를 허만세, 이순희와 김영숙(2017)이 축약하여 구성한 한국판 CES-DC 11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대부분 그렇다' (3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1문항을 평균 낸 값을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상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93, 미국 청소년은 .856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48이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은 한국과 미국 모두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와 Beidel, Turner와 Morris(1993)의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를 토대로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개발한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요인적재(factor loading)값이 높은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을 평균 낸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933, 미국 청소년은 .925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929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6$, $p<.01$). 두 척도의 단위가 서로 달라 우울증상과 사회적 불안 각각의 평균값을 Z값으로 표준화한 후, 두 값을 다시 평균 내어 내재화 문제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점수(composite score)로 사용하였다.

4) 자아가치(global self-worth)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Harter(1988)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SPPA)를 이용하여 자아가치를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정선희(2000)가 변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SPPA는 총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인 자아가치를 측정하는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부터 4점까지 응답범주를 가지며, 분석에는 5문항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즉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자아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가치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한국 청소년이 .859, 미국 청소년이 .843이었다. 두 국가를 합친 내적합치도는 .851이었다.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년, 부모 결혼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자아가치 수준, 또래 괴롭힘 빈도, 내재화 문제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학년을 통제하였다(이순희, 허만세, 2014; 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Holt & Espelage, 2007). 학년은 중학교 1학년 재학은 1로, 2학년 재학은 2로 코딩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혹은 사별 등과 같은 가족 해체 경험이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부모 결혼상태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Mandara & Murray, 2000). 청소년의 부모님이 결혼상태인 경우를 0으로, 사별 혹은 이혼 등의 상태를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을 위해서 MacArthur가 개발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사다리 척도를 Goodman과 그의 동료들(2003)이 수정한 청소년판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며, 객관적 사회경제적 위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ngh-Manoux, Marmot & Adler, 2005). 한국에서는 본 연구자와 한국어, 영어 모두에 능숙한 발달 전공 대학원생이 변안한 것을 또 다른 발달 전공 대학원생이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히 변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 검사를 진행하였다. 척도는 10개의 층으로 구성된 사다리 모양의 시각적 도구이며,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각각을 2개의 사다리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묻는 사다리 도구는 각각 1부터 10까지로 코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위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SPSS 25.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8.3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매개경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과 Wald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결혼상태를 통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값,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을 알아보았다. 이중 χ^2 값이 작고, p-value는 유의수준보다 클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Keith, 2014). CFI와 TLI는 .95 이상일 때, RMSEA는 .06 이하일 때 적당한 적합도를 나타낸다(Hu & Bentler, 1999).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하여 10000번의 무작위 표집을 반복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김수영, 2016).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일 경우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Kline, 2005),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 첨도 절대값은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두 국가의 청소년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가족지지 평균은 5.55, 친구지지 평균은 5.48로 청소년들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평균은 1.8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고, 자아가치의 평균은 2.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국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1)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t = -7.32$, $p < .001$)과, 내재화 문제($t = -3.32$, $p < .01$)를 보고하였다. 반면 자아가치는 한국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80$, $p < .001$).

표 1

국가에 따른 주요 변인의 t검정 결과

측정변인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p)
가족지지	한국	438	5.62	1.28	1.66(.098)
	미국	272	5.44	1.46	
친구지지	한국	438	5.54	1.33	1.46(.146)
	미국	272	5.38	1.47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한국	462	1.72	.43	-7.32(.001)***
	미국	281	2.01	.57	
내재화 문제	한국	462	-.08	.84	-3.32(.01)**
	미국	291	.13	.88	
자아가치	한국	450	2.78	.72	-3.80(.001)***
	미국	280	2.98	.70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r = -.31$, $p < .01$), 내재화 문제($r = -.36$,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가치($r = .40$,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친구지지 역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r = -.52$, $p < .01$), 내재화 문제($r = -.34$,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가치($r = .28$,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내재화 문제($r = .48$,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아가치($r = -.32$,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는 자아가치($r = -.62$,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국가별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표 2)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각각의 결과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지지가 높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는 감소하고, 자아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청소년 모두에서 매개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모두 독립변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종속변인인 자아가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한국 청소년 $N=462$, 미국 청소년 $N=292$)

측정변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가족지지	-	.44**	-.24**	-.33**	.37**
친구지지	.34**	-	-.53**	-.34**	.31**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38**	-.52**	-	.40**	-.28**
내재화 문제	-.39**	-.34**	.56**	-	-.66**
자아가치	.49**	.27**	-.50**	-.64**	-

** $p < .01$

주. 우측 상단은 미국 청소년, 좌측 하단은 한국 청소년 결과임.

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미국과 한국 청소년 모두를 합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07(df=1, p=.79)$, CFI=1.00, TLI=1.02, RMSEA=.00(90% C.I.=.00~.06)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그림 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2, p<.001$), 내재화 문제($b=-0.14, p<.001$)와 자아가치($b=0.11, p<.001$)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였다.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6, p<.001$)에 미치는 직접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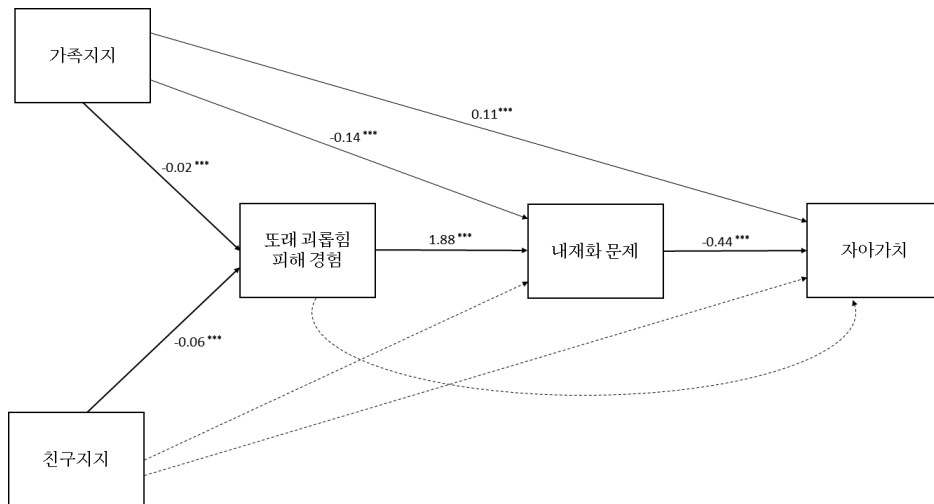


그림 1.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N=754$)

*** $p<.001$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하며,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다음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를 통해 자아가치에 미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10000번의 무작위 표집을 통한 부트스트랩 분석을 하였다. 표3과 같이,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b=0.01$, 95% C.I.=.005~.02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통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매개경로도 유의하였다($b=0.06$, 95% C.I.=.039~.083).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통해 자아가치에 미치는 매개경로도 유의하였다($b=0.05$, 95% C.I.=.038~.064).

표 3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 검증($N=754$)

매개효과 경로				B	95% C.I.
가족지지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6***	.039~.083
가족지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1***	.005~.025
친구지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0.05***	.038~.064

*** $p<.001$

주. 유의한 매개효과 경로만을 포함하였음.

3.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자아가치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서의 국가 차이 검증

앞서 살펴본 구조 모형에서 국가에 따른 간접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Wald test를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09(df=2, p=.96)$, CFI=1.00, TLI=1.04, RMSEA=.00(90% C.I.=.00~.00)로 전체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림 2와 같이, 한국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b=-0.15, p<.001$)와 자아가치($b=0.09,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고,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0, ns$)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지지의 경우 직접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6, p<.001$)에만 유의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의 직접 영향은 내재화 문제($b=1.66, p<.001$)에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자아가치($b=-0.48,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미국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3, p<.001$), 내재화 문제($b=-0.11, p<.001$), 자아가치($b=0.13,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친구지지의 직접 영향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b=-0.06, p<.001$)에만 유의하였다. 미국 초기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내재화 문제($b=2.08, p<.001$)와 자아가치($b=-0.65,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문제 또한 자아가치($b=$

-0.39, $p<.001$)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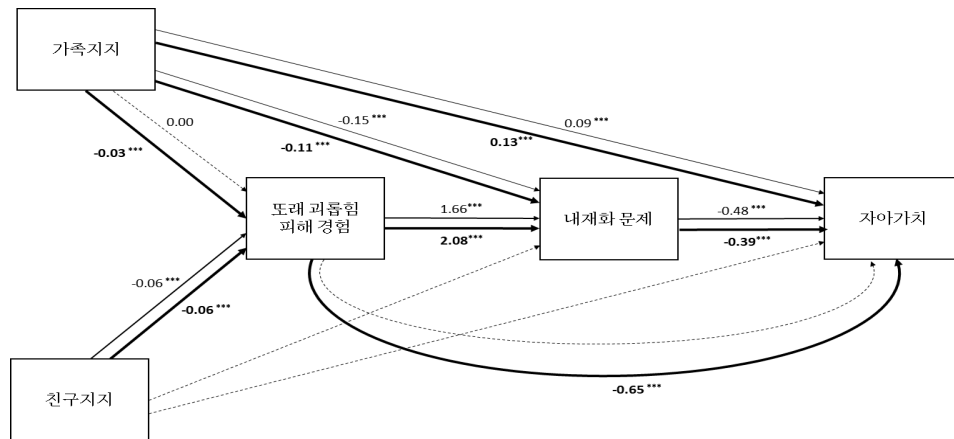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N=462$, 미국 청소년 $N=292$)

*** $p<.001$

주. 얇은 실선은 한국 청소년의 경로, 굵은 실선은 미국 청소년의 경로를 의미함.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그림의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다음으로 Wald test를 통해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간접 영향의 국가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통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는, 미국 청소년($b=0.04$, 95% C.I.=0.015~0.077)과 한국 청소년($b=0.07$, 95% C.I.=0.041~0.107)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경로 역시, 미국 청소년($b=0.05$, 95% C.I.=0.031~0.069)과 한국 청소년($b=0.05$, 95% C.I.=0.032~0.070) 모두 유의하였다.

한편,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로 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청소년($b=0.02$, 95% C.I.=0.007~0.042)의 경우 유의한 반면, 한국 청소년($b=0.00$, 95% C.I.= -0.005~0.003)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때 Wald test 결과 이러한 국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국 청소년($b = 0.02$, 95% C.I. = $0.012 \sim 0.042$)의 경우 유의하였지만, 한국 청소년($b = 0.00$, 95% C.I. = $-0.013 \sim 0.010$)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Wald test 결과 이러한 국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임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청소년의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b = 0.04$, 95% C.I. = $0.014 \sim 0.067$)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청소년($b = 0.00$, 95% C.I. = $-0.024 \sim 0.031$)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Wald test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국가 차이 검증(한국 청소년 $N=462$, 미국 청소년 $N=292$)

매개효과 경로				국가	매개효과	95% C.I.
가 족 지 지 친 구 지 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자아가치	한국	0.00	-0.005~0.003
				미국	0.02*	0.007~0.042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7*	0.041~0.107
				미국	0.04*	0.015~0.077
친 구 지 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0	-0.013~0.010
				미국	0.02*	0.012~0.042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자아가치	한국	0.00	-0.024~0.031
				미국	0.04*	0.014~0.067
지 지	→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 내재화 문제	→ 자아가치	한국	0.05*	0.032~0.070
				미국	0.05*	0.031~0.069

*** $p < .001$

주.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하지 않은 매개경로는 표에서 제외함. 95% 신뢰구간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간의 직·간접적 영향과 국가에 따라 매개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의 3개 도시 소재 4개 중학교와 미국 Alabama 주의 3개 학교에서 수집된 총 754명(한국 462명; 만 12세~15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년과 부모 결혼상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반면, 친구지지는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순희, 허만세, 2014; Roberts et al., 2000). 반면,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김애경(2003)의 연구를 지지하나,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자아가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Chu, Saucier & Hafner,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주요한 타인이 친구보다 부모인 경우가 더 많다(Helsen et al., 2000). 즉, 초기 청소년기는 주된 관심이 친구로 점차 옮겨가는 하나, 부모의 직접적 영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지지는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 영향 역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가 대인관계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Roberts et al., 2000), 가족의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Stadler et al., 2010). 반면,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는 자아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초기 청소년기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으로(Fenzel, 2000), 높은 친구지지는 부정적 또래 경험을 예방하고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결국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Mishna et al., 2016)를 지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과 친구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자아가치 중 일부 변인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친구지지가 어떠한 발달경로를 거쳐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다집단 분석과 Wald test를 통해 가족 및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의 국가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지지가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자아가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종과 문화권에 상관없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모의 양육이 자아가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며(Kang et al., 2003), 부정적 정서 예방을 목적으로 가족지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 초기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 친구지지가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아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친구관계가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며(박은민, 2010; Fenzel, 2000),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 증진을 위해 친구 혹은 같은 학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개입(universal interventions)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청소년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

국 청소년의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한국 부모는 미국 부모에 비해 덜 민주적이고, 더 통제적인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선이 외, 2008), 비록 한국 사회에서 통제적 양육방식을 자녀가 애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박영신, 김의철, 2004), 부모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획득이 주된 발달과업인 이 시기 통제적 양육은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육방식과 더불어 학업이 가족관계 내에서 주된 관심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지지를 얻더라도 학업 관련한 것에 치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했고, 연구모형에서 가족지지와 높은 상관을 가지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친구지지가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을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주는 영향 역시 미국 청소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미국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긍정적 자아가치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며, 한국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은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더 영향을 줬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한 미국 연구결과(Davidson & McCabe, 2006)와 맥을 같이하며, 한국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데 학업이 매우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연구(김현순, 2014)를 지지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미국 모두 유의한 만큼 여전히 친구지지 증진을 통해 부정적 또래 경험과 부정적 정서를 예방하는 것이 긍정적 자아가치 형성에 중요한 방법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로 이어지는 발달경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적절함에도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와 자아가치 모두 상호 영향을 주

고받는 변인이기에 초기 청소년의 자아가치에 이르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개인외적 변인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와 함께 독립변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증진을 위해서 가족지지, 친구지지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추후연구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매개하여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도시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초기 청소년의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가치,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 내재화 문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존재하나, 이들 간의 발달경로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가운데,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켜 자아가치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자아가치 향상을 위한 예방적 개입을 실행할 때 친구와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지지가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를 낮추어 자아가치를 향상시키는 매개경로는 미국 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가족을 포함한 청소년 자아가치 증진을 위한 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반드시 한국 사회의 가족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2018년 정서·행동검사결과**. 서울: 교육부.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정규 (2009). 미국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3(12), 225-253.
- 노영주, 김순혜 (2016). 초중등학생의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차이. **청소년학연구**, 23(5), 181-204. doi:10.21509/KJYS.2016.05.23.5.181
-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 동아일보 (2019. 05. 30). “자해행동은 청소년이 보내는 SOS”.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30/95761742/1>에서 4월 29일 인출.
- 매일경제 (2020. 04. 27). [2020청소년] “4명 중 3명 ‘사교육’”... 사망자수 전년보다 3.8%↑.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4/434665/>에서 2020년 4월 29일 인출.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doi:10.15842/kjcp.2002.21.2.011
- 박선희 (2014).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발달중재학회지**, 5(1), 17-33.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10, 87-115.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3(3), 75-88.
- 보건복지부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손병덕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정과 또래소외경험, 종교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4), 131-148. doi:10.21509/KJYS.2016.04.23.4.131

- 신경민 (2018). 아동·청소년 우울증의 근거기반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595-604. doi:10.15842/kjcp.2018.37.4.011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15-130.
- 윤인진, 임창규, 정재영 (2007).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47, 167-192.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순희, 허만세 (2014).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교사회복지*, 27, 253-274.
- 이창훈, 송주영 (2009). 집단 괴롭힘(Bullying)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범죄학*, 3(2), 103-143.
- 임지영 (1997).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신재, 김희수 (2019). 청소년의 우울·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169-191. doi:10.17997/SWRY.63.1.6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0.
- 정선희 (2000). **초기 청소년의 친구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허만세, 이순희, 김영숙 (2017). 한국어판 CES-DC 11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255-285. doi:10.24301/MHSW.2017.03.45.1.255
- 홍영준, 이미경 (2014).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불안, 대인예민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445-474.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doi:10.1111/1529-1006.01431
- Birkeland, M. S., Melkevik, O., Holsen, I., & Wold, B. (2012). Trajectories of global self-esteem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5(1), 43-54. doi:10.1016/j.adolescence.2011.06.006
- Canty-Mitchell, J., & Zimet, G. D.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urb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3), 391-400. doi:10.1023/a:1005109522457
- Chu, P. S., Saucier, D. A., & Hafner, E. (2010).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6), 624-645. doi:10.1521/jscp.2010.29.6.62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2), 367-380.
- Davidson, L. M., & Demaray, M. K. (2007).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etween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distress from bully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6(3), 383-405.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3).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by students classified as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in an urban middle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2(3), 471-489.
-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7(4), 853-870. doi:10.1111/j.1467-9507.2008.00458.x
-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s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93-116. doi:10.1177/0272431600020001005
- Goodman, E., Adler, N. E., Daniels, S. R., Morrison, J. A., Slap, G. S., & Dolan, L. M. (2003). Impa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on obesity in a biracial cohort of adolescents. *Obesity Research*, 11(8), 1018-1026. doi:10.1038/oby.2003.140
- Grills, A. E., & Ollendick, T. H. (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doi:10.1207/s15374424jccp3101_08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6), 773-796. doi:10.1037/0033-2909.127.6.773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Eds.), *Competence considered* (pp. 67-97). Yale University Press.
- Harter, S., & Whitsell, N. R. (2003). Beyond the debate: Why some adolescents report stable self-worth over time and situation, whereas others report changes in self-worth.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27-1058. doi:10.1111/1467-6494.7106006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 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41-455. doi:10.1111/1469-7610.00629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doi:10.1023/a:1005147708827
- Holt, M. K., & Espelage, D. L. (2007).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984-994.

doi:10.1007/s10964-006-9153-3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Jenkins, L. N., & Demaray, M. K. (2012). Social support and self-concept in relation to peer victimization and peer aggress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11(1), 56-74. doi:10.1080/15388220.2011.630958
- Johnson, M. D., Galambos, N. L., & Krahn, H. J. (2016). Vulnerability, scar, or reciprocal risk? Temporal ordering of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over 25 year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7(4), 304-319. doi:10.14301/lcs.v7i4.394
- Kang, S. M., Shaver, P. R., Sue, S., Min, K. H., & Jing, H. (2003). Culture-specific patterns in the prediction of life satisfaction: Roles of emotion, relationship quality, and self-esteem.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12), 1596-1608. doi:10.1177/0146167203255986
- Keith, T. (2014). *Multiple regression and beyond* (2nd ed.). New York: Routledge.
-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Greca, A. M., & Stone, W.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1), 17-27. doi:10.1207/s15374424jccp2201_2
- Mandara, J., & Murray, C. B. (2000). Effects of parental marital status, income, and family functioning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75-490. doi:10.1037/0893-3200.14.3.475
- Miller, H. M. (2000). Cross-cultural validity of a model of self-worth: Application to Finnish childr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8(2), 105-118. doi:10.2224/sbp.2000.28.2.105
- Mishna, F., Khoury-Kassabri, M., Schwan, K., Wiener, J., Craig, W., Beran, T., ...

- & Daciuk, J. (2016). The contribution of social support to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perception: The mediating role of bullying victimiz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3, 120-127. doi:10.1016/j.chidyouth.2016.02.013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7th ed.). Author.
- Oliver, C., & Candappa, M. (2007). Bullying and the politics of 'telling'. *Oxford Review of Education*, 33(1), 71-86.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doi:10.1037/a0025558
- Reijntjes, A., Kamphuis, J. H., Prinzie, P., & Telch, M. J. (2010).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Child Abuse & Neglect*, 34(4), 244-252. doi:10.1016/j.chiabu.2009.07.009
- Roberts, A., Seidman, E., Pedersen, S., Chesir-Teran, D., Allen, L., Aber, J. L., ... & Hsueh, J. (2000). Perceived family and peer transactions and self-esteem among urban early adolesc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68-92. doi:10.1177/0272431600020001004
- Rudy, D., & Grusec, J. E. (2006). Authoritarian parenting in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groups: Associations with maternal emotion and cognition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 68-78. doi:10.1037/0893-3200.20.1.68
- Sahin, E., Barut, Y., & Ersanli, E. (2013). Parental education level positively affects self-esteem of Turkish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4(20), 87-97.
- Shahar, G., & Henrich, C. C. (2010). Do depressive symptoms erode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Self and Identity*, 9(4), 403-415. doi:10.1080/15298860903286090
- Shapka, J. D., & Keating, D. P. (2005). Structure and change in self-concept during adolesc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7(2), 83-96.

- Singh-Manoux, A., Marmot, M. G., & Adler, N. E. (2005). Does subjective social status predict health and change in health status better than objective status?. *Psychosomatic Medicine*, 67(6), 855-861. doi:10.1097/01.psy.0000188434.52941.a0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doi:10.1037/a0028931
- Stadler, C., Feifel, J., Rohrmann, S., Vermeiren, R., & Poustka, F. (2010). Peer-victimiz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adolescents: Are parental and school support protectiv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1, 371-386. doi:10.1007/s10578-010-0174-5
- Steiger, B., Fend, A. E., & Allemand, H. A. (2015). Testing the vulnerability and scar models of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from adolescence to middle adulthood and across generations. *Mathias Developmental Psychology*, 51(2), 236-247. doi:10.1037/a0038478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 Wang, Q., & Leichtman, M. D. (2000). Same beginnings, different stories: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hildren's narratives. *Child Development*, 71(5), 1329-1346. doi:10.1111/1467-8624.00231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 (1980). Children's symptom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12), 736-740. doi:10.1097/00005053-198012000-0000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ABSTRACT

The developmental pathways from family and friend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early adolescents: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A

Park, Mi Yeon* · Kim, Hyoun K.**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developmental paths through which perceived family and friends support influenced self-wor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se paths varied between Korea and the USA. Data from 754 early adolescents (462 in Korea; ages 12 to 15 year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When early adolescents from both countries were considered together, the direct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self-worth were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self-worth was significantly mediated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and self-worth was significantly mediated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Multigroup analysis and a Wald test were conducted to identify any cultural differenc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diating paths from family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from family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and from friend support to self-worth through peer victimization were significant for U.S. adolescents only.

Key Words: early adolescent,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self-worth, cultural differences

투고일: 2020. 6. 8, 심사일: 2020. 8. 4, 심사완료일: 2020. 8. 13

*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Professor